



니카라과 단기선교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은 ‘2009년 8월 1일(토) - 8월 8일(토)’ 까지 펼쳐질 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2009년도 니카라과 단기 선교단 파송을 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스페니쉬 교회분들을 포함하여 총 26명의 니카라과 단기 선교단이 이날 파송을 받았는데, 이날 파송예배에는 선교단 소개가 있었고, 노회의 Ken Grant 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부름받아, 갈라진 곳에 다리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는 자들입니다...올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이 되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하는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란 권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파송 예배 전날인 25일에는 선교에 가져갈 약품 포장을 하였으며, 니카라과 선교에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하셔서 약품 포장을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8월 1일(토) 새벽에 26명의 선교단원이 니카라과를 향해 떠났습니다.

니카라과에 도착한 저희 교회 단기선교단은 선교사 가족들과 니카라과 한인교회 한인들과 반갑게 만났습니다. 다음날 주일에는 San Juan del Concepcion(10개 교회 연합)에 참여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고, 월요일에는 전 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을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하였습니다.



이후 Iglesia Gozo Eterno/Ciudad, Tisma 제 새개척교회와 인근 교회(4개 교회 연합), Iglesia Bautista /Ciudad, Ni-quinohomo(15개 교회 연합), Iglesia Torre Fuerte/Barrio Oscar Perez/Masaya(11개 교회 연합), Iglesia Vida

8월호차례

- ☞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 ☞ 담당목사 매세지
- ☞ 당회소식
- ☞ 새로이 시작되는 보스톤 한인교회
- ☞ 교육 3부 성인 성경공부
- ☞ ECC 건축 소식
- ☞ 니카라과 단기선교 후원기금 모금골프대회를 마치고
- ☞ 사회정의위원회
- ☞ 교인위원회
- ☞ 집사회 소식
- ☞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 ☞ “God Will Do Wonders Among You”
- ☞ 신앙 간증 문
- ☞ 중고등부 소식
- ☞ 애바라기 소식
- ☞ 디아스포라 리포트: 보스톤 한인교회(2편)
- ☞ 알림 및 교우동행
- ☞ 새교우 환영반
- ☞ KCB 갤러리

“11시에 만나요.”

생똥쥐베리의 “어린 왕자” 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여우가 어린왕자에게 말합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가령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벌써 행복하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낄거야. 네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될거야. 행복이 참으로 값있다는 걸 알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을 끄게 치장을 해야할지 영 알 수가 없지 않아?... 예절이 필요한 거란다.”

이제는 여우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기

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

교육관 건축이 끝나면 저희 자녀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울러 예수님은 어른들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11시에 함께 만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눕시다. 온 가족이 함께...

당회 소식

당회 서기: 김문소 장로

1. 부르크라인 제일 장로교회에서 ECC 건축을 위한 현금으로 \$100,000을 7월 19일 전달해 오셨습니다.
2. 방송실 이전 계획: 현 방송실의 A/V control booth를 예배당 뒤 Balcony로 옮기는 설치 계획서를 Brookline의 Building Commissioner로부터 7월 29일 허락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A/V control booth로 올라가는 계단을 현 교회 사무실 안쪽으로 설치하게 되므로, 현재의 이목사님 방과 교회 사무실 사이의 벽을 터서 사무실을 늘리고, 담임목사님 방은 ECC 건물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3. 아랫층 부엌 개조 (new kitchen renovation): 지하층에 있는 부엌과 그 옆의 작은 방을 터서 새롭게 업데이트 된 부엌을 만들어 community center 쪽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할 계획입니다.
4. 새로운 성인성경공부반 구성과 운영: ECC 건축 완성후 유년,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11시부터 순서가 시작되므로,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성인 성경공부반을 11시부터 1시간 가지며, 교재는 [말씀과 함께]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성원과 인도자 선정 등을 교육 3부에서 검토중

이므로 교인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5. Lunch program: ECC 완공후 교회 활동 시간이 길어지므로 우선 청년 1.2부와 성인 성경공부 인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6. ECC 완공후 필요한 Furniture 준비: 새로운 건물 안에 들어갈 가구들(예; 어린이 예배를 위한 피아노,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Parlor에 놓을 큰 환영 table과 의자 등등)이 필요하게 되어 우리 모두의 기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 6월 임시 공동의회 소식: 6월 28일 2부 예배후 2009년도 공천위원 인준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2009년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현장에 의해, 2009년도 만은 4개 부서에서 공천위원을 선출하여 6개월 이내에 임시 공동의회에서 결의키로 함에 따라, 이날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를 가졌습니다.
- 4개 부서에서 선출된 공천위원: 김현주 (집사회 대표), 김지수 (권사회 & 상록회), 김영미 (마리아 & 에스더 여성교회), 김민준 (청년1부, 2부, 부부청년부) 이상 4명이 2009년 공천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인준되었습니다.

ECC 완공과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보스톤 한인교회

말씀이 함께 하는, 삼세대가 함께 하는 보스톤 한인 교회: 11시에 시작합니다.

교육관이 완공되면,

1. 유년 초등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주일 예배시간이 오전 11시로 앞당겨집니다. 유년 초등 주일 학교는 새로짓는 교육관 2층에 있는 어린이 성전에서, 중고등부는 교육관 지하에 있는 예배실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예배를 봅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은 이전과 동일한 오후 1시20분경이 됩니다.
2. 전 교인을 대상으로하는 성인성경공부반이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한시간 동안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뉘어 기존 구역예배 교재였던 “말씀과 함께”를 사용하여 인도자의 인도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구역예배에는 다른 교재가 쓰일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했던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당의 2부 예배 시간은 지금과 동일하게 정오 12시

에 시작됩니다.

3. 영어 예배 (English Ministry)가 새로 짓는 ECC Community Center (Harvard St쪽 건물)에서 주일 12시부터 시작됩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형식과 순서로 진행되는 예배는 영어를 사용하는 예배로, 영어가 편한 1.5세나 2세 한인들 및 대학 청년부 학생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교육 3 부 성인 성경공부

김명실 강로

우리가 매 주 바라보며 염원하고 기도 드리는 교육관 공사가 완공될 9월 또는 10월에는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영어예배의 시작 시간이 바뀐에 따라서” 성인 성경 공부반도 오전 10:50분으로 옮겨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는 학부모님들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동시에 1,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들도 함께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실시될 성인성경공부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현재 구역에서 공부하던 “말씀과 함께”를 교재로 하고, 구역에서는 “구역 성경공부” 라는 다른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2. 공부반 운영은 강의식이 아닌 토의식으로, 현재 각 구역에서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 성인들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서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토의 하는 방식은 좀 어색할 수도 있으나, 여러 교우들의 신앙 간증을 나누면서 각 교우들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 대하여 좀 다른 각도

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성경구절을 영어로도 읽습니다. 지난 부활절때 목사님께서 미국인들을 만나면 “He is risen” 하며 인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 교인들 여러 사람들에게 “He is risen” 이냐 “He has risen” 물었더니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성경에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나이 많이드신 집사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이것은 수동태로 “He is risen” 이며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특히 한국어에서 잘 사용되지않는 수동태를 번역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성경 구절을 영어로도 읽어야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세, 3세들에게 한글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1세대도 영어에 익숙해야 3세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2달간 무더운 한 여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ECC 건축에 많은 진행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Roofing ceremony를 갖고, 그간 진행되어져 온 ECC 건축에 대한 감사의 예배와 더불어, 건축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7월에는 ECC 교육관 건축이 많이 진전됨에 따라 입구쪽의 본격적인 새로운 공사를 위해 기존의 현관문을 닫고, 새롭게 만든 Harvard St. 쪽의 문과 Pierce St. 쪽의 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진행된 공사 내역으로는, 교육관 건물에 유리창이 다 설치되었으며, 현재 내부 시설과 전기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건물안 인테리어를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각 교실 바닥을 (Youth group room 포함)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 카펫보다는 견고한 Wood corkplank flooring으로 깔기로 결정하였으며, 1층에 Handicapped accessible한 Family bathroom (with diaper changing station)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당에 새로운 A/V control booth를 본당 뒷편 Balcony 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A/V control booth로 access할 계단을 교회 사무실쪽으로 내기로 함으로써, 담임목사님 방과 사무실의 벽을 허물기로 하고, 이목사님의 사

무실을 ECC 건물 1층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감사하게도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에서 저희 교회 ECC 건물을 위하여 10만불을 헌금해 주셨으며, 지난 5월호 Christian Today의 ‘Theology In Wood and Concrete’란 제목의 글에 저희 교회 ‘어린이 채플’에 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기도 가운데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때까지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 단기선교 후원기금 모금골프대회를 마치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2009년도 Nicaragua 단기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선교기금(순수익 \$4,000)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또한 Nicaragua로 떠나는 선교단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사역 중에는 그곳 현지인들로 연합된 교인들이 우리 선교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봉사하며 돌아와야 될 것이 예상됨으로, 우리 모든 단원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7번째 Nicaragua로 떠나는 우리 선교단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에 힘입어 내일 새벽

Dear KCB Golfers,

고르지못한 날씨 가운데에도 오로지(?) 선교를 돕기위한 일념으로 먼곳 마다않고 참여해 주신 모든

5:40AM 비행기에 몸을 싣고 Nicaragua로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크신 영광을 위하여 서로간에 큰 은혜만을 빚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길 기대하며, 이 사랑과 받은 은혜를 Nicaragua에 전하고 돌아 오겠습니다.

For His Glory,
안 태준

Tournament Result

순수익: \$4,000

Hole Sponsors: 조준호, 김문소, 김세철, 이경환,

이정규, 김민준, 이상진, 강길원, 한승희, 박성준 (John Park), 안태준, 김성현, 박한우, 김준구, 고진수, 이삼환, 한문수, Jeff Kim, 안성완, 박철완, 김종희, 지윤구, 지훈

상품기증: 백승환 (BOSE Head Phones (2), Computer Speakers (1))
김성현 (Trophies, 김밥과 스낵, 물)
안태준 (Golf Balls (16 Dozens), Golf Towels (4))

수상자: Champion 안태준 (+9)
A조 1등 Jeff Kim 2등 이정일
B조 1등 김호일 2등 박한우
Senior조 1등 권복태 2등 손정안
Ladies조 1등 이진화, 채혜성

사회 정의 위원회

김영선 장로

Bottled Water Quiz True or False?

1. Bottled water is healthier than tap water.
False. There is often no difference. Little is known about the health risks of water stored in disposable plastic (PET) bottles or the effect of additives over long periods at high temperatures
2. Bottled water is safer than tap water.
False. The US EPA sets more stringent standards for tap water than the FDA does for bottled beverages. Roughly 40% of bottled water is actually tap water.*
3. Bottled water is convenient and portable.
True. But using a refillable bottle is just as convenient and less expensive.
4. Most plastic water bottles are recycled.
False. According to the Container Recycling Institute, only 14% of PET bottles are recycled. The rest end up in landfills or as litter. Millions of barrels of oil are required each year to produce and transport them.
5. The market for bottled water is growing.

True. The Beverage Marketing Corporation states that Americans spent more than \$9 billion on bottled water in 2004 and that the product's rate of growth was almost 10% per year for the previous 10 years.

6. The UN is addressing water issues in the developing world.
True. The UN adopted a resolution in 2003 calling this the "Decade for Wate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lso have an objective to halve the number of people who lack reliable and safe drinking water by 2015.
7. Some bottled water is more expensive than gasoline.
True. Often selling for up to \$2.50 a liter (which translates to \$10 a gallon), bottled water is more expensive than gasoline.
8. My purchase of bottled water is unrelated to safer drinking water for the whole world.
False. The UN estimates that if the world took half of what it now spends on bottled water (\$100 billion per year) and invested it in water infrastructure and treatment, everyone in the world could have access to clean drinking water.

What You Can Do

- Sign the Bottled Water Pledge and invite others to sign.
- Drink water from a reusable bottle, travel mug or canteen.
- Encourage your church to provide water pitchers rather than individual bottles at meetings & events.
- Engage in water issues through education, worship, advocacy (resources below), and service (e.g., stream clean-ups).
- Encourage municipal officials to keep your water utility in public control.
- Insist on safe standards and affordable access for all.
- Conserve water (fix leaky faucets, take shorter showers, turn off faucets when brushing teeth/washing dishes).

Further Resources

For Worship, Education and Advocacy

www.prcweb.org, www.pcusa.org/environment,
www.pcusa.org/oghs, www.pcusa.org/trade/thirst,
www.pcusa.org/peacemaking, www.pcusa.org/washington, www.livingwatersfortheworld.org, www.churchworldservice.org, www.ncccojustice.org

To the thirsty, I will give water as a gift from the spring of life. **Revelation 21:6**

What the Bible Teaches:

Is it not enough for you to drink clear water? Must you also muddy the rest with your feet? (Ezekiel 34:18)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take your inheritance,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drink.. (Matthew 25:34-35)

What the Church Teaches:

Humans are making excessive demands upon, and doing reckless damage to, the lakes and streams, the ground water, and even the oceans...

Meanwhile, most Third World nations cannot afford the systems that would provide safe drinking water...

[H]uman beings [must] practice wise, humble, responsible stewardship, after the model of servanthood that we have in Jesus.

“Restoring Creation for Ecology and Justice” General Assembly 1990

Bottled Water Pledge

- I pledge to avoid use of disposable plastic (PET) water bottles.
- I pledge to drink from a reusable container.
- I pledge to ask my church and/or presbytery to eliminate PET water bottles from church events.
- I pledge to learn more about local and global water concerns.
- I pledge to support public water utilities and affordable access to clean water for all people.

To sign this pledge:

www.prcweb.org or contact PRC Coordinator
Rebecca Barnes-Davies:
prc@sfts.edu or 415-451-2826

We are called to be obedient to Jesus Christ, the Prince of Peace, who loves the whole world and who invites us to be stewards of the earth and servants of his people, to be co-workers in the new Creation.

Peacemaking: The Believers' Calling General Assembly 1980

www.pcusa.org/peacemaking

* In emergency and special health circumstances, bottled water may be the only safe water available.



교인위원회

지난 6월 28일(일)에는 8명의 유아세례와 4명의 성인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세례: 이응규(Brian Lee) - 이창화/안소영, 최재윤(Joseph Choi) - 최현구/김희현, 김수연(David Kim) - 김진홍/김경태, 이혜원(Noelle) - 이요한/김희진, 최서연(Gabrielle Choi) - 최준/김정혜, 소피아 규옥 파바노(Sophia Kyuok

Pavano) - 파바노 바이런/장윤희, 구지수(Julia Yuriko Jisoo Koo) - 구용한/마리꼬 카토구, 계수(Joshua Lee-Gae) - 계동성/이진희, 유다은(Luidia) - 유민재/김래아

성인세례: 박한우, 김두원, 구혜영, 김지은

집사회 소식

김준구 집사

집사회 도서부 (부장: 김은정 집사)에서는 신앙서적을 위주로 신간도서 35권을 구입하여 도서관에 새로 진열해 놓았습니다. 신규 구입한 도서 목록은 도서관 입구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월경에도 추가로 신간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니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도서부장이신 김은정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6월에는 집사회 구제부 (부장: David Choi 집사, 차장: 김동숙 집사)에서 중서3구역 (구역장: 유승오 집사)과 함께 Boston Rescue Mission에서 운영하는 homeless shelter를 방문하여 150명의 homeless 분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김동숙 집사님과 이경자 집사님을 주축으로 2개월마다 homeless 분들에게 음식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8월달에는 중앙4구역과 함께 8월16일에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대접할 계획입니다.

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김동숙 집사님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체육부 (부장: 박진욱 집사)에서는 8월15일(토) 광복기념 뉴잉글랜드 한인 체육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볼, 농구, 배구, 족구등 4가지 종목의 경기가 치뤄지고 응원상도 있다고 하니 많은 교우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나 응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진욱 집사님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집사회의 풍물팀인 “하늘소리”가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방학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는 다시 주말마다 오후 3:30에 교회에서 연습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유탉 집사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1. PCUSA의 여선교회 총회 집회모임이 켄터키주의 루이빌에서 지난 7월 11일-15일에 있었습니다. 이모임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김한나 집사가 동북대회 한인여선교회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미국내 2,500여명의 여선교회원들과, 미국외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God will do wonders among you”라는 주제하에 대예배와 포럼, 워크샵, 관광, 회의 등을 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동북대회 연합선교대회가 9월 19일(토)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인 보스톤한인교회이며, 강사는 윤경문 목사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동북대회 내의 여선교회원 중 선교사역을 하고 오신 분들의 선교보고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host 하는 관계로 여선교회원들은 미리 시간을 준비하시어 많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God Will Do Wonders Among You” (Churchwide Gathering 모임에 다녀와서...)

김하나 집사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5)”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떤가를 흉내만 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안의 개구리로 이것이 다 인양 만족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날 쓰시기로 하였고, 또 억지 춘향이로 Churchwide Gathering (7월 11-15일 켄터키주 루이빌)에도 다녀왔습니다. 역시 내가 자족하며 살던 세상은 우물 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하라... 하지만 2,500여명의 여성교인들이 전국에서 모인 Churchwide Gathering의 모임의 평균 연령은 아마도 60세 이상은 되리라 추측됩니다. 20-30대의 젊은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호호백발의 할머니들이 은빛 물결을 이루며 찬양과 춤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Detroit에서 Louisville에 가는 비행기로 옮겨왔을 때부터 기내의 대부분 승객이 몇몇의 남자 목사님을 제외하고 호호백발의 여성들을 비롯하여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옆에 앉은 젊은 여성도 PW Gathering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3년전에 참석했었고, 엄마가 이번에는 내가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적극 후원해서 참석한다고 흥분해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Baggage Claim 하는 곳에는 이미 꾀대를 들고 나와 마중하는 친절한 회원들이 계셨고, 초면의 member들과 스스럼없이 함께 택시 동승하여 호텔까지 오면서 ‘이것이 한 목적으로 모이는 자들의 가족됨’을 실감케하는 감격의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4박 5일 동안의 루이빌 downtown은 은빛 물

결의 여성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검은 머리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좋은 하모니를 연출했지요.

이번 모임의 주제는 “God Will Do Wonders Among You” 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예배 (Plenary)가 각 기 다른 주제로 8번 - Wonder of God, Wonder of Community, Wonder of Creation, Wonder of Mission, Wonder of Hope, Wonder of Grace, Wonder of Discipleship, Celebration of Wonder - 이 있었고, 아침 대예배 전에는 “아침 경건의 시간(하루 아침은 한 인여성들이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은주 목사님의 정과 어우러진 창소리로 함께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예배후 점심전에는 Forums(9 classes)의 시간, 점심후에는 Workshops(60 classes), 또는 관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Great Room Garden에는 각 기관의 소개관이 있어 많은 지식과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정의의 위한 Fair-Trading 물품과 자연보호를 지향하는 많은 상품들과 전시등이 있었습니다. 또 12개의 Hospitality Room 들도 마련되어 있어 각 인종/지역 별 여성교회원들을 환영하는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한미여성교회 전국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임도 있었지요. 올해는 약 30명의 한미여성들이 참석했더군요. 3년전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루이빌의 한인 여성교회원님들께서 정성스레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부노회 대표로 뉴저지에서 참석하신 두 분은 Voting Representatives로 이틀동안 Business Meeting에 참석하셨고, 한인동북대회의 회원으로 참석한 최창희 사모와 저는 좋은 Forum과 Workshop을 골라 참석하는 행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받고 감명을 안겨주는 귀한 시간들이었지만 특히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짬짬이 찾아 다닌 Spirituality Center였습니다. 바쁘고 소리가 가득찬 공간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아늑한 기도와 묵상의 장소로 꾸며진 그 곳에는 여러 개의 기도 station이 여러 형태의 기도 방법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3 pg 로 계속..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지 이제 막 일년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마치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휘 돌아가듯 정신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제 모든 삶이 변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제 곁에는 아주 예쁜 아기 천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기는 그 흔한 입덧없이 엄마를 편하게 해주며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아니 평생 기억에 남을 일 한가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이었습니다.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몸이 벌레에 물린 것 같이 울긋불긋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딱히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이제는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잠 못 들고 힘들어 하는 저를 새벽녘에 발견하시고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으시고는 가슴 속 깊이 우려나오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가슴에 울림이 왔습니다. 눈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소영이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어머니의 기도 구절은 아직도 제 눈시울을 불거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간지러움은 조금씩 사그라들어가고, 하루 종일 피가 나도록 온몸을 긁어대던 제가 차츰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어머니의 기도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더 큰 감사의 마음과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없이 크신 사랑에 제 작은 믿음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무엇이랄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과 함께 보내주신 귀한 생명에 대해 감사함을 돌아가며 고백했습니다. 항상 그 시간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끔찍이도 아픈 고통이 찾아왔고,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견디어 주었습니다.

견디기 가장 힘든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
그 정신없는 와중에 또 한번 나약한 저는 아버지께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시듯 또 저와 함께 해주시어 아무 탈없이 온 가족의 기쁨인 응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기의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깨어 돌보고, 살피느라 어느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 자녀를 키우고 돌본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듯 보내주신 귀한 생명을 사랑 속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 아이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옆에서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아버지는 무교, 어머니는 불교, 누나는 기독교, 동생 무교, 저 역시 26년 동안 친구 손에 이끌려 잠깐씩 가본 교회 경험만이 체계는 전부였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 이외에 가족보다 가까운 보이지 않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동안은 기독교와의 인연의 끈이 좋지 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친하신 친구분이 계셨었는데, 그 분은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언제나 저의 집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시곤 저에게 꼭 교회에 나가보라며 주님의 은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희 집이 그 분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때 밥을 먹게 되면서 제 기억으론 제 인생 첫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분께서 저와 저희 집을 염려해주시는 기도를 가까이서 듣고 참 이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무언가가 저 친구분을 이렇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엔 어머니 친구분이 제게 교회를 다녀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아마도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만 제가 대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그때 당시엔 그랬겠지만, 저희 집 역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전 유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 보단 친구들과 혹은 운동장에서 보냈습니다. 더우기 부모님들께서는 제 누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좋은 결과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특히 저한테는 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고 싶은 데로 키우셨습니다. 아마 이런 환경덕분인지, 26년 동안은 저 자신만을 위하고 믿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소 신경을 쓰지 않는 이기적인 제 자신의 모습

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모른채 살아왔나 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가 가끔은 감당할 수 없는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안 문제 혹은 제 자신에게 생기는 일들이 당시에는 왜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저와 친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제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한테는 더욱더 타인에 대한 불신들이 마음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남들과는 다르고 싶어하지만, 저는 그때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 가는데 힘든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니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수많은 주님과 만남 기회를 버렸으면서 이제와서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 이유가 된 것도 환경 탓이 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저희 누나가 미국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 너머로 자주 들곤 했습니다. 그때 제게 다시 한번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고, 두번째로 한국에서야 말이 통하고 친구들 덕분에 그 동안 감춰왔던 마음의 공허함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지만, 유학생활에서 제 마음의 고독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2년을 되돌아보면, 1년은 하나님께 대한 제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는 데에 걸렸고, 그 나머지 1년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서로 줄을 당기듯이 좁혀가고 알아가는데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100% 옳은 길인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겐 26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도 제 중심적이었고 저 자신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신뢰하기엔 제 마음의 문이 너무나도 좁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관계를 가까워지려고 제 자신이 노력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그마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갔을 때 사람들의 따뜻한 정, 교회에 들어설 때 느끼는 편안함 또는 가끔씩 와 닿는 성경 한 구절 일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중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여태까지 배운 성경 중에 제겐 다가오는 듯 싶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현재로선 제 마음속에 온기를 불어준 따뜻함을 더 느껴보려고 조금씩 노력 중입니다. 현명하지 못하여 제게

주신 주님의 손길을 바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때에 제 주위를 둘러봤을 때 이것이 주님으로 부터 온 은총이라면, 제 자식에게도 꼭 느껴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소식

김성현 집사



지난 7월 18일에는 약 25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연례 행사인 Six Flag

trip을 가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끼리, 또한 학생과 선생님들간에 더욱 더 가까와질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summer camp, 한국 방문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정한진 (John Chung) 전도사 (347-821-1294)나 김성현 집사 (617-332-1950)에게 연락주십시오.

해바라기 소식

김동규 집사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해바라기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2세에서 5학년까지 어린이들과 함께 해바라기 주일학교는 여름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보스톤 인근에서 모여든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나홀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익히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여름성경학교인데 4시부터 본당은 늘 찬양을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북적거렸고, 늘 8시를 넘기고도 교회 안팎은 어린이들과 기쁨에 들뜬 부모님들로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박강희 사모님의 지도로 토들러반을 별도 운영하였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였습니다. 성경학교의 시작과 정리 시간의 찬양은 한달전부터 연습해온 워십댄스팀 어린이들과 김영순 집사님의 인도로 찬양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홀동안 하루업무를 마치고도 헌신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분 한분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홀동안 늘 '더 주세요!' 라는 요구에 즐거운 미소로 맛있는 밥을 준비해주셨던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회장: 배한원집사)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휴가를 내서 서까지 방송반 시설을 묵묵히 준비해주시고 뒷정리를 해주신 이봉옥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멀리 계시고 어려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듬고 우리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가슴벅찬 나홀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가 되었다. Y2K의 공포는 하나의 기우였음이 판명되면서 보스턴 한인교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표어를 감히 ‘세계로 향한 교회’라고 내 걸었다. 이유는 지난 호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세계 최초 선교사이자,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였던 사도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다름 아닌 그 당시 이민 교회인 안디옥교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해를 맞으면서 첫 다섯 주일은 안디옥 교회를 주제로 하여 설교하였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사도바울을 탄생시키실 수 밖에 없으셨는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을 본문 말씀으로 하여 다섯 주간에 걸쳐 설교하였다. 다섯 가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문화의 갈등을 극복한 교회였다. 여러 인종이 섞여 있었으며, 특히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이루어진 교회였다. 문화적 갈등을 맞보지 못하고서 과연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그 결과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루살렘 예서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최초로 교인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자못 의미가 있어 보인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을 때 구제 사역을 펼쳤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잘 이해하나 보다. 가난한 이민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이다.

네째로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살피는 교회였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 많은 경우 일들이 잘 안될 때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가?

다섯째로 안디옥 교회는 정상을 향하는 교회였다. 그 험난한 세계 선교의 길을 용감하게 시행한 첫 교회가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정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이었다.

이상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보스턴 한인 교회가 닮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2000년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내리셨다. 중국 연변을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느 날 안내를 받아 ‘명동’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다. ‘동쪽을 밝힌다’ 해서 明東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큰 돌이 보였고, 다음과 같은 다섯 글자가 적혀져 있었다.

‘운동주 생가.’ 운동주 시인이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다. 마을 안에 들어가 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다. 명동교회이다. 이 교회에서 운동주가 어린 시절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자란 곳이다. 바로 옆에 운동주 생가가 보였다.

집은 꽤 좋아 보였다. 멀리 초등학교가 보였는데 운동주가 다닌 명동학교란다. 운동주는 이민자 중에 이민자였고 또한 그는 명동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큰 인물이 되어 가는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 안디옥 교회에 매료되었었던 나는 명동교회에 매료되기 시작하였다. 명동교회는 한국이민자들의 제2의 안디옥 교회임을 알게 되는 너무도 귀한 은혜가 넘치는 여행이었다.

2000년도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해에 아틀란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가와 교회를 방문하였다. 생가와 그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가까이 있었다. 교회 이름은 에벤에젤 교회였다. 어떻게 보면 흑인 이민 교회이다.

그의 할아버지를 이어 아버지가 그 교회 목회를 하였고 마틴루터 킹 목사님도 그 교회 목회를 하였다. 교회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안내석에서 에벤에젤 교회 주보를 받아 보았다. 보자마자 나는 소름이 끼쳤다. 주보에 교회 표어가 적혀 있었다. ‘세계를 향한 교회’ (A Church for All Countries)”



1 pg 니카라과 단기선교 로부터 이어서..

Nueva/Barrio San Andre Vega/Masaya (백 선교사 개척 교회) 등에서 선교 사역을 가졌고, 교육팀에서는 소망교회, 은혜교회, 하나님의 은사교회, 예수님의 마음교회, 마샤야 제일교회에서 교사 강습회와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니카라과 선교단은 이번 선교를 통하여 의료와 교육, 미용 사역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곳 니카라과 지역의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이 니카라과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게 되어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선교 단원: 이선영, 강길원, 구혜영, 김경애, 김선희, 김애리, 김지윤, 김향인, 노준성, 문강희, 문영진, 방수영, 안태준, 윤영중, 윤영태, 이동흡, 이명미, 이미숙, 장현숙, 채수경, 채진병, 최송자, 최연일, 한인혜, Gisela Valdez Cott, Horacio Valdez II (총 26명)

8 pg “God Will Do Wonders Among You” 로부터 이어서..

화요일에는 각 대회(Synod) 별로 점심을 함께 하며 모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해있는 Synod of the Northeast에는 약 200명 이라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고 (불행히도 보스톤 노회에서는 저와 단 1명의 여자 목사님, 합 2명만이 참석한 부진한 노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병상의 회원들, 수술을 앞둔 회원들을 위해 모두가 양손을 들어 안수기도 하는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마라가스카의 여인들이 손으로 만든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straw bag들이 선교헌금으로 쓰여질 좋은 선물로 마련되어 있어 뜻하지 않은 기념 가방을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날 아침예배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으며, 매 시간마다 다짐한 사명을, 삶을 통해 실천코자 기도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매 3년마다 모이는 Churchwide Gathering에서는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는 임원진들이 선출되는데, 이번 3년간의 임기동안 수고할 Moderator 로는 Marta Rodriguez(Synod of Puerto Rico)가 선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미여선교회를 대표하는 Members at Large에 이정인 집사님 (프린스턴 한인교회)이 임명받으셨습니다. 3년후 2012년도는 Florida에서 모입니다. 그 때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글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체험들이 벅차오르게 많아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하지 못한 좋은 뒷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알림

- 한울타리 이메일 버전: 종이사용을 줄이는 환경 운동의 일환으로, 원하시는 교우님들에게 교회 소식지 한울타리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화일로 받아보실 경우 사진들을 칼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복도 게시판에 성함과 이메일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2부 김세희 교우께서 예쁜 국그릇 40개를 한국에서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 8월 2일부터 2부 찬양대가 한달 동안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1부 찬양대는 계속 봉사합니다.

교우동정

1. 최연일 장로 부친 한국에서 소천 (6월 중순)
2. 안태준 장로 부친 오레곤에서 소천 (7월)

5월 새교우 환영반

6월 20일 새교우 환영회가 조준호 장로/김하나 집사댁에서 있었습니다.

강 윤석/이 정은 (둘 다 세례교인)
 강 윤석: 미국태생,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셨고, 미국에서 대학, 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신앙생활 하시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이 정은: 고등학교 QT모임 때 관심 갖고 교회생활 시작하셨고, 19살 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Boston에오신 지 1년쯤 되었고 부부 함께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전 혜성 (세례교인)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셋,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2년 전쯤 대학에 다니던 아드님이 스포츠 사고를 당하신 후 큰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고, 아드님의 회복과 더불어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감사한 생활하고 계십니다. 활발한 Youth그룹에 막내를 보내시고 싶으셔서 보스톤 한인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신앙 생활에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시고 싶으시며, 아들 1, 딸 1 있습니다.

심 재혁/양 연숙

심 재혁: 미국 생활 9년째이시며, 미국 Yale대학교로 유학 오신 후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신앙 생활을 하시고 싶습니다.

양 연숙: 모태신앙이시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결혼 후 5년 정도 미국 생활을 하였고 많은 기도와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하시고 싶어합니다.

최 관우/김 소희 (둘 다 세례교인)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아들임에 반하여 결혼하셨다는 김 소희 교수님. 어려서부터 본인도 신앙생활 하였고 교사활동 등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잔잔한

채 진병/채 수경 (둘 다 세례교인)

채 진병: 3년 전에 New Jersey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내과 의사이시며,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에도 의료 선교 멤버로써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채 수경: 모태 신앙, 간호원이시며, 남편과 함께 니카라과 단기선교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7월 새교우 환영반



8월 2일 새교우 환영회가 이정규/김영미집사택에서 있었습니다.

사공현일/ 박정은

사공현일: 올해 1월 11일 간호원이었던 박정은 교우와 결혼했고, 뉴저지에서 보스톤 회사로 오게 되어 여동생 친구인 채수경 교우 소개로 보스톤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은: 대학공부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프린스턴 한인교회 토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성경공부 인도자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KOSTA 등 신앙 집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유성민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가 QT 소개하였고,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말을 들었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잡아 주시는 거다’ 라는 생각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배성주/박은영 집사 부부의 인도로 보스톤 한인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하기실 원합니다.

최준영/ 홍신숙

3대째 믿는 신앙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고신(장로교), SFC신앙단체에서 생활

하셨습니다.

아내 홍신숙 교우도 모태 신앙이시고, 신앙이 뜨거웠을 때 결혼하셨으며, 현재 좀 DOWN되어 있어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류덕현/ 김양희

김양희: 어린 때 외할머니에 의해 교회 접하게 되었고, 미국 산호세의 한 교회 학교 소속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미국에서 키우려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다. 산호세에서 10년간 생활하셨고, 남편 직장 관계로 보스톤에 오게 되었습니다.

류덕현: 모태신앙(천주교 신자)이십니

다.

강석우/ 도현희: 산호세에서 직장관계로 보스톤으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북서2구역에 속하셨습니다.

김대식/ 최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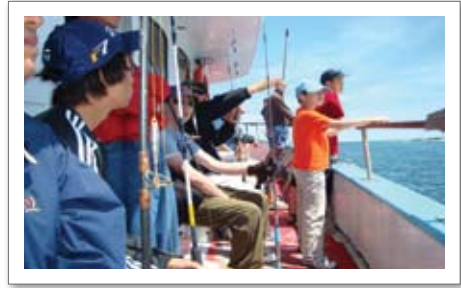
두 분 모두 2003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세례받으셨습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1부 찬양대 모임



• 중앙4구역 바다낚시



• 세례식



• ECC 건축사진



• VBS 2009



• 니카라과 단기선교